



CIFC BiAnnual





SHARING KOREA'S BEST FINANCIAL PRACTICES & EXPERIENCES





CONTENTS

04 발간사

06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16 회원기관 동정 : 보험개발원

18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보고

20 전문가 초청세미나 : 아시아개발은행 소개와 협력방안 공유

22 전문가 초청세미나 :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방안 검토

26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아르메니아

34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

38 전문가 초청세미나 :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

42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44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발간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설립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발족 초기에 추구했던 아시아 특정 국가와의 금융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이제 전반적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으로 한층 발전하였고, 해외 파트너 국가들과의 한국 금융발전 모델의 공유라는 주된 관심사는 핀테크, 금융포용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대한 공동의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발전은 21개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활동 중인 회원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 기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 이들 회원기관의 발전은 곧 한국 금융의 발전이었습니다. 현재에는, 이들의 글로벌 협력이 곧 한국 금융의 글로벌 협력이 되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금융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글로벌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금융 트렌드는 핀테크의 발전입니다. 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모습의 금융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경쟁체제, 금융기관의 내부구조, 금융기관-고객 간의 관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는 미래 모습을 꿰뚫어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협의회는 핀테크를 금융협력의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금융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미래의 금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혁신적 변화가 다양한 금융 주체들로부터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를 초월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혁신적 초국가적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협의회는 금융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지속적인 협력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 국가들뿐만 아니라 신북방정책과 연관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동, 유럽 지역의 국가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에는 그동안 협력관계가 없었던 아르메니아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금융협력을 지향하는 협의회의 본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당국의 앞선 지원에 힘입어 올해로 7년 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협력포럼, 공무원 초청연수, 금융전문가 초청세미나,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 여러 유형의 체계적이고 의미있는 글로벌 금융협력 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 및 국가적 차이, 금융 환경적 차이 등에 제약받지 않고, 전세계 44개 국가에서 850여 명의 금융전문가와 교류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룬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다양하게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더 나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8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손상호**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글로벌 금융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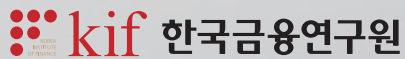
설립배경 & 회원명부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의체입니다. 21개 회원기관들이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금융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 주요 협력기관들과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러한 회원기관들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협력국가의 정책당국 및 협력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매년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PARTNERS



“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금융기관과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



현재 21개의 회원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KIBO 기술보증기금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CG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DIC 예금보험공사	 >koscom
 KRX 한국거래소	 KSD 한국예탁결제원	 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KCB	 NICE 평가정보 NICE Information Service	 IBK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여신금융협회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2013

KEY ACTIVITIES



- Mar.**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활동 시작
워크숍 제1회 해금협 워크숍
-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우리나라 경제·금융발전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발주
-
- May.** **회의** 5월 정례회의
-
- Jun.** **회의** 6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
세미나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 세미나
-
- Jul.** **회의** 7월 정례회의
-
- Sep.** **기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초청연수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초청 연수
-
-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포럼 우즈베키스탄 보험산업 발전 포럼
-
- Nov.** **회의** 2013년 정기총회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 간담회
-
- Dec.** **강연** 국제결제은행(BIS) 심일혁 박사 초청 강연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워크숍 제2회 해금협 워크숍

2014

KEY ACTIVITIES



- Jan.** 초청연수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 Feb.** 회의 2월 정례회의

-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 Apr.** 포럼 제1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회의 4월 정례회의

- May.**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포럼 한·미안마·ADB 금융협력포럼

- Jun.** 회의 6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국내금융의 성공적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발주

- Jul.** 회의 7월 정례회의

- Aug.** 초청연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 Sep.** 회의 9월 정례회의

- Oct.** 초청연수 덴마크 Danske Bank 부사장 초청
회의 10월 정례회의 개최

- Nov.** 초청연수 미안마 Myanmar Insurance 초청
세미나 한·미안마 금융협력 세미나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포럼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2015

KEY ACTIVITIES



Jan.	회의	1월 정례회의
Feb.	회의	2015년 정기총회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IDB Korea Insights Program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은행권 초청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개최
May.	연구사업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주
	연구사업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주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간담회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지원
	포럼	제2회 한·영 민관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Jun.	워크숍	제3회 해금협 워크숍
	강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강연
	기타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Jul.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회사 해외진출 간담회
	회의	7월 정례회의
Sep.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회의	9월 정례회의
Oct.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Nov.	회의	11월 정례회의
Dec.	포럼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2016

KEY ACTIVITIES



- Jan.** 회의 1월 정례회의

- Feb.**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회의 2016년 정기총회

- Mar.**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Aloqabank) 초청
워크숍 제4회 해금협 워크숍
강연 WB 송도사무소 Sameer Goyal 초청
초청연수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경제발전기획부, 건설부, 주택건설개발은행 초청
세미나 미얀마 공무원 초청 주택금융 세미나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 Jun.** 포럼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회의 6월 정례회의

- Jul.** 초청연수 미얀마 계획재무부 차관 초청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
회의 7월 정례회의

- Aug.** 초청연수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기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Sep.** 회의 9월 정례회의

-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
세미나 한·이란 금융협력 세미나

- Nov.**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포럼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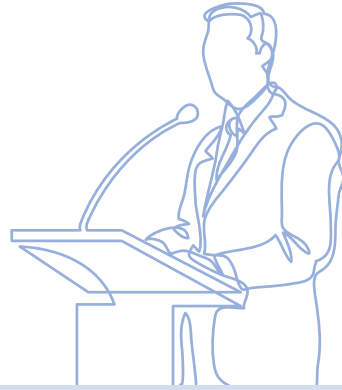
KEY ACTIVITIES



Jan.	회의	부서장급 사전회의
Feb.	회의	2017년 정기총회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강연	기획재정부 박종근 국장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방향'
	강연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모, 양은용 변호사 '동남아 주요국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May.	토론회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 · 해금협 공동 토론회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협회
	회의	5월 정례회의
Jun.	초청연수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베트남 금융협력 세미나
	세미나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간담회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회의	6월 정례회의
Jul.	공동연수	신용보증기금 · IBK기업은행
	포럼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Aug.	기타	CIFC BiAnnual Vol. 1 발간
Sep.	공동연수	한국신용정보원 · NICE 평가정보
	회의	9월 정례회의
	포럼	한 · 태국 금융협력포럼
	워크숍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포럼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 엑스포
Nov.	포럼	제4차 한 · 영 금융협력포럼
	회의	11월 정례회의
Dec.	포럼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공동연수	금융결제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18

KEY ACTIVITIES



- Jan.**
 - 회의** 정기총회 사전회의
 - 워크숍** 제4회 미안마 주택금융 워크숍

- Feb.**
 - 회의** 2018년 정기총회
 - 기타** CIFIC BiAnnual Vol. 2 발간

- Mar.**
 - 회의** 3월 정례회의
 - 포럼**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 Apr.**
 - 회의** 4월 정례회의
 - 기타** CIFIC 2017 Annual Report 발간

- May.**
 - 세미나**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와의 협력방안
 - 회의** 5월 정례회의

- Jun.**
 - 세미나**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
 - 회의** 6월 정례회의
 - 공동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 Aug.**
 - 세미나**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강화 방안 검토
 - 공동연수** IBK기업은행·은행연합회
 - 회의** 8월 정례회의
 - 기타** CIFIC BiAnnual Vol. 3 발간
 - 기타** 제3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 Sep.**
 -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Oct.**
 - 공동연수** 금융결제원·NICE평가정보
 - 회의** 10월 정례회의

- Nov.**
 - 공동연수** 신용정보원·KCB
 -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 포럼**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
 - 회의** 12월 정례회의
 - 기타** 제4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2019

KEY ACTIVITIES



Jan.

회의 1월 정례회의

공동연수 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 공동연수

Feb.

회의 2월 정례회의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Apr.

세미나 아시아개발은행 소개와 협력방안 공유

회의 4월 정례회의

May.

공동연수 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IBK기업은행 공동연수

회의 5월 정례회의

세미나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방안 검토

Jun.

초정연수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아르메니아

Jul.

공동연수 한국거래소·코스콤 공동연수

세미나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

공동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공동연수

세미나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

회의 7월 정례회의

회원기관 동정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반기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 해금협)는 국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협력창구로서 글로벌 금융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해금협의 다양한 금융협력사업을 통해 전 세계 주요 보험유관기관 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1983년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전문 종합서비스 기관입니다.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요율 및 준비금 적정성 확인, 보험관련 통계작성,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보험가입 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연구기관으로 자동차 수리기법의 향상과 이를 통한 자동차 수리비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기준에 의한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차량의 손상성·수리성을 평가하는 자동차기술연구 사업은 타 보험관련 단체와 차별화 되는 특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개발원은 창립 후 약 36년 동안 한국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보험시장으로 발전하는 데 그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과 아시아 보험시장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과 2015년에 몽골 현지에서 각각 자동차의무보험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방안과 몽골 내 보험

전문기관 설립 및 일반손해보험 DB 구축 관리 방안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KSP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15년 베트남 보험감독청(ISA)과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의 보험산업 선진화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보험 국제포럼 중 하나인 IIRFA(Insurance Information Ratemaking Forum of Asia)의 창립멤버로서, 각국의 보험 환경 속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 등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8회 IIRFA 2019 서울 포럼을 개최하여 협력의 장을 더욱 더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보험산업 인프라 개선 및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은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제협력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등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금융협력포럼, 현지금융협력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 해금협 주관의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개발원은 해금협 회원사로서 글로벌 협력 관련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저희들이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반기보고서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해금협과 회원기관 모두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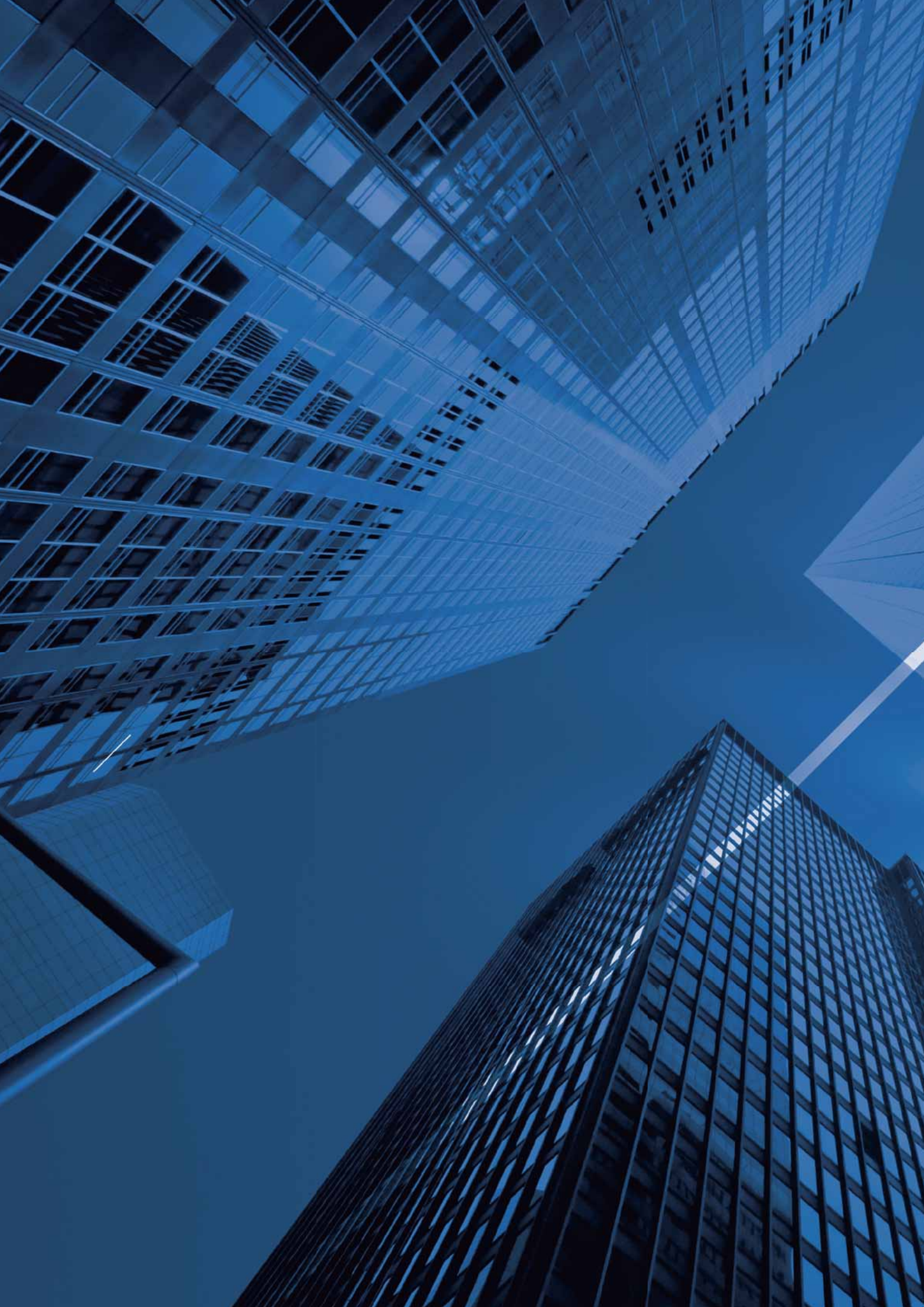
보험개발원장 **강 호**

“

전 세계 주요 보험유관기관 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





2019

생반기 주요사업보고

／
CIFC BiAnnual

전문가 초청세미나

아시아개발은행 소개와 협력방안 공유

CIFC Invitational Seminar : Cooperation with the ADB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9년 4월 22일(월)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주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금융부문 총괄 책임자인 Lotte Schou-Zibelli 발표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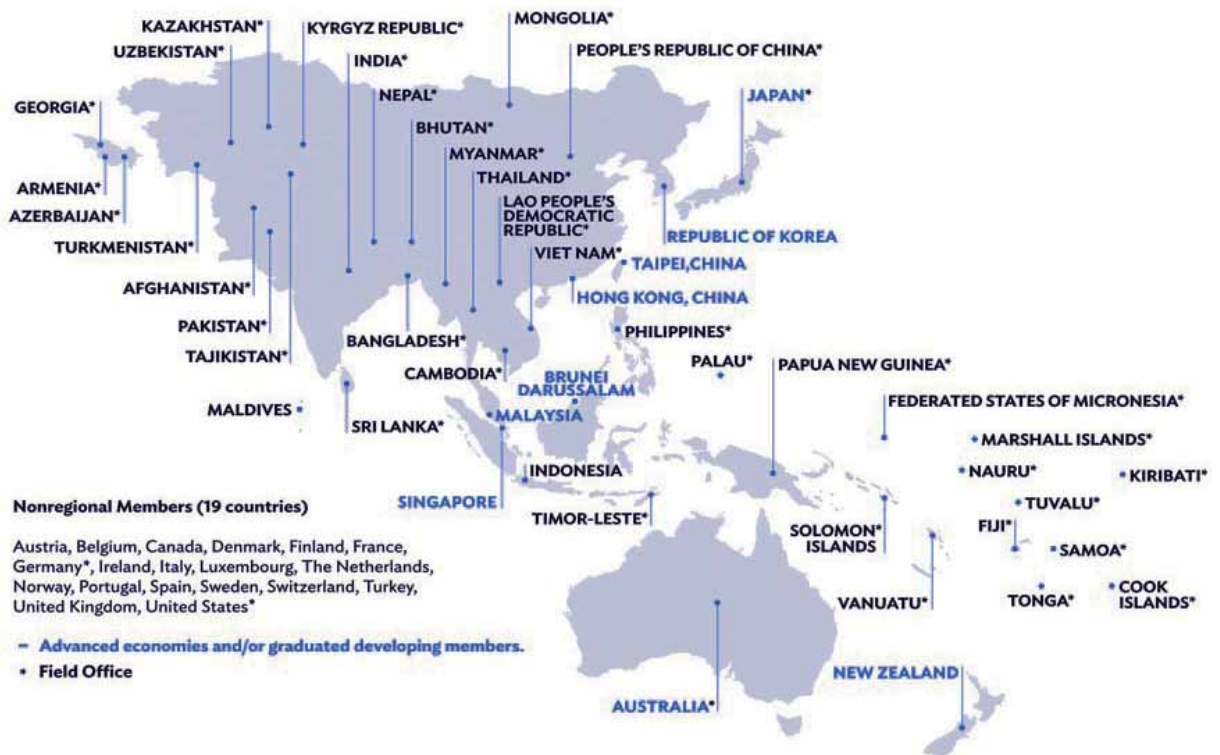


아시아개발은행 소개와 협력방안 공유

Lotte Schou-Zibelli | 금융부문 총괄 책임자 |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금융부문 총괄 책임자인 Lotte Schou-Zibelli는 스웨덴 재무부에서 국제경제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스웨덴 금융감독위원회 정책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또한, 스웨덴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96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 되었다. 현재 역내 49개국, 역외 19개국, 총 6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40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금융과 지식의 융합, 좋은 정책의 활성화, 역내 협력 도모 등을 통해 해당국들을 지원한다.





금융부문 총괄책임자 Lotte Schou-Zibell이 속해있는 금융부문그룹은 재난위험, 보험, 인프라, 금융, 녹색금융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프로젝트 역시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지식공유를 통해 배움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이버 안보 등 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주제를 토대로 워크숍을 개최해 교육하고 다른 개발도상국 담당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나아가, 금융 접근성 격차와 인프라 금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만다나오섬 지방은행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을 재교육 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과의 금융부문 협력 기회와 방법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조직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아시아개발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웹사이트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외부전문가의 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 유무, 참여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소속된 기관의 전문성을 소개하는 등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문가 초청세미나 금융분야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검토

CIFC Invitational Seminar : Understanding the New Northern Policy and Examining Cooperation Opportunities with Central Asia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9년 5월 27일(월) 포시즌스 호텔 6층 누리룸에서 금융분야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김상철 연구교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정경희 협력총괄팀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지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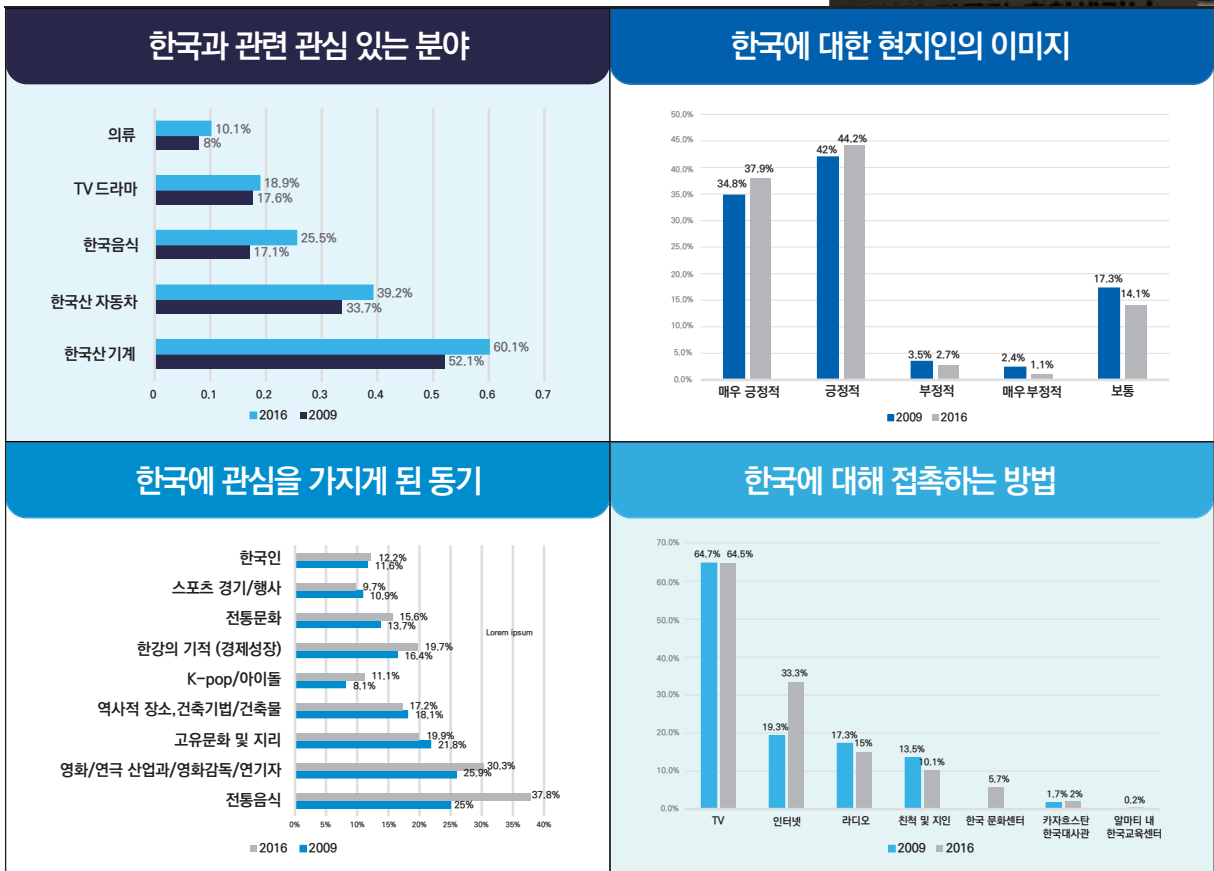
전체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5:00-15:05	인사말씀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김정환 센터장
15:05-15:10	기념촬영
15:10-15:40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역사·문화연계와 향후 관계 발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김상철 연구교수
15:40-15:50	휴 식
15:50-16:20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정경희 협력총괄팀장
16:20-16:50	중앙아시아 주요국 집중 탐구 : 경제 및 진출 환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지원 연구위원
16:50-17:00	질의응답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역사 · 문화 연계와 향후 관계 발전

김상철 | 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김상철 연구교수는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역사 · 문화 연계와 향후 관계 발전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아시아와의 문화 연계에 있어서 경제지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앙아시아의 경제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GNP가 아닌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중심으로 경제력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 대비 소비성향과 대출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해 부실채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출신의 국내 체류자, 이들 국가로부터의 의료관광 지출, 항공 편수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음을 설명했다. 이는 한식, K-POP, 화장품 등의 영향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관련해서 현지 조사된 설문자료를 공유했다.



역사적으로는, 현재 '중앙아시아'라고 지칭하는 국가들은 정주전통지대와 유목전통지대로 나뉜다고 설명했고, 각각 페르시아 이란계통과 돌궐계통으로 이들 간의 문화적, 역사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보여줬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초청세미나

금융분야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검토

CIFC Invitational Seminar : Understanding the New Northern Policy and Examining Cooperation Opportunities with Central Asia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정경희 | 협력총괄팀장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정경희 협력총괄팀장은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중앙아시아와의 중점 협력 분야 및 중앙아시아의 금융환경을 차례로 설명했다. 가장 먼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와 북방국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향후 남북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전 아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추진체계, 추진전략, 중점과제 등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외 향후 추진계획으로 약 56개의 부처별 주요과제가 있으나, 북한 및 비핵화 상황과 연계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의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 중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분석했으며, 이들의 주요 정책 과제로는 ▲거버넌스, ▲연결망, ▲비즈니스 환경을 지적했다. 이에, 중앙아시아와 우리 정부의 경제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전통산업(에너지, 자원, 농업 등), ▲첨단 및 서비스 산업(보건의료, 환경건설, 정보통신, 행정, 교통물류 등)과 관련하여 많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주요국 집중 탐구 : 경제 및 진출 환경

박지원 | 연구위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지원 연구위원은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 및 진출 환경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중앙아시아 5개국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며,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대외적인 경제 환경을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요 3개국의 경우, 자원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이는 원자재 가격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로, 2020년까지 예측되는 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화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도 자원의존도가 매우 높은 러시아에 연동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면적	272만 4,900km ² (세계 9위)	44만 7,400km ² (세계 57위)	48만 8,100km ² (세계 53위)	19만 9,950km ² (세계 87위)	14만 3,100km ² (세계 96위)
인구 (2017년 기준)	18,556,698 (세계 60위)	29,748,859 (세계 44위)	5,351,277 (세계 119위)	5,789,122 (세계 114위)	8,468,555 (세계 96위)
GDP (2017년 기준) (단위 : 백만 USD)	162,887 (세계 55위)	49,677 (세계 84위)	37,926 (세계 93위)	7,565 (세계 145위)	7,146 (세계 147위)
1인당 GDP (2017년 기준) (단위 : 백만 USD)	9030.4 (세계 90위)	1533.9 (세계 196위)	6586.6 (세계 112위)	1219.8 (세계 207위)	801.1 (세계 219위)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아르메니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Armenia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9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박 7일간 해금협 회원기관의 금융인프라 발전 경험 전수 및 양국의 금융제도와 규제, 상호진출 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주택금융공사, 크레딧뷰로, 지급결제기관, 거래소, 예금보험기금 소속 고위급 임원 8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해금협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아르메니아 금융협력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연구원, NICE평가정보, KDB산업은행,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 아르메니아 금융협력세미나

'한 · 아르메니아 금융협력세미나'는 2019년 6월 17일(월) 은행회관 16층 بان커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아르메니아 연수단과 금융위원회 및 해금협 21개 회원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아르메니아 연수단이 관심 갖는 주제인 '한국의 경제정책 결정 체계'와 '한국의 금융정책 운용 및 수립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이 개회사를, 금융위원회 김태현 상임위원이 환영사를,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의 Martin Galstyan 상임위원이 축사를 맡았다. 이어서,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과 금융위원회 김영도 자문관,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의 Davit Kirakosyan 선임과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5:45-16:00	등록 및 VIP 티타임
16:00-16:05	개회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
16:05-16:10	환영사 금융위원회 김태현 상임위원
16:10-16:15	축 사 Martin Galstyan, Board Member, Central Bank of Armenia
16:15-16:20	포토세션
16:20-17:00	한국의 경제정책 결정 체계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
17:00-17:40	한국의 금융정책 운용 및 수립체계 금융위원회 김영도 자문관
17:40-17:50	휴 식
17:50-18:30	아르메니아 금융제도 소개 Davit Kirakosyan, Senior Project Manager, Central Bank of Armenia
18:30-21:00	네트워킹 만찬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아르메니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Armenia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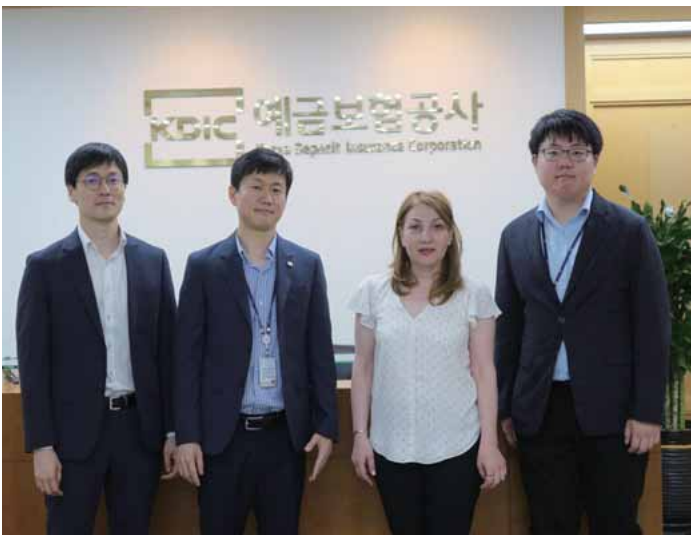
한국신용정보원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한국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 받고, 한국의 신용정보 관리 체계, 기술금융 및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여 국제협력 담당 이사를 면담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을 방문하여 원장, 부원장, 기획협력실장과 면담하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설립배경, 주요활동 및 연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NICE평가정보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NICE평가정보를 방문하여 NICE평가정보 해외사업팀으로부터 공공과 민간의 협력 매커니즘을 통한 신용인프라 구축,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에서 신용인프라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아르메니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Armenia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내방

KDB산업은행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18일(화) 오후 KDB산업은행에 방문하여 글로벌사업 부행장과 면담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18일(화) 오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해외사업부 상무와 아르메니아 거래소의 제안사업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어 홍보관 투어를 마친 후 한국 자본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금융결제원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금융결제원을 방문하여 금융결제원장과 면담하고 금융결제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기술보증기금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 및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이어서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현재 구상중인 기술보증 관련 사업에 대해 직접 발표하기도 하였다.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아르메니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Armenia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내방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20일(목)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임원을 면담하고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또한 실무진 미팅을 통하여 기관별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20일(목) 오후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하여 예탁결제원의 주요 업무와 인프라에 대한 정책 연수를 받고 양국 간 협력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은행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방문하여 임원 면담 후 박물관 견학을 실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르메니아 연수단은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공사 사장과 면담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근거 및 목적과 주요 업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

LAC-Korea Financial Cooperation Seminar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및 미주개발은행과 2019년 7월 11일(목)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중남미 지역 거래소 및 금융기관 관계자 초청 연수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중남미 연수단이 관심 갖는 주제인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 경험 및 시사점',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효과적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및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동 행사에는 중남미국가(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파나마, 코스타리카, 페루 등)의 거래소 이사장 및 업계인사 20명과 금융위원회, 미주개발은행, 해금협 21개 회원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이 개회사를, 금융위원회 최훈 상임위원이 환영사를 맡았다. 이어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박기환 팀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6:00-16:05	개회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
16:05-16:10	환영사 금융위원회 최훈 상임위원
16:10-16:20	포토세션
16:20-17:00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 경험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17:00-17:40	사회적기업의 효과적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및 운영체계 한국예탁결제원 박기환 팀장
17:40-18:00	칵테일 리셉션
18:00-20:00	네트워킹 만찬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

LAC-Korea Financial Cooperation Seminar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 경험 및 시사점

김병덕 | 선임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 경험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자본 시장은 초기단계, 성장단계, 아시아 금융위기, 시장구조 개선단계 등 4개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했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마련되었고, 이후 자본시장 구조개선 및 제도정비가 이루어지며 현재의 모습으로 빠르게 성장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에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정책, 다양한 금융상품 및 거래플랫폼, 폭 넓은 투자자 기반, 최고의 자본시장 인프라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초기 단계 (1956~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거래소 설립 (1956년) • 자본시장육성법 제정 (1968년) • 자본시장 급성장 (1970년~)
자본시장 성장 단계 (1979~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자본시장 급락 (1980년대 초반) • 경제성장 회복으로 인해 자본시장 성장 (1980년대 중반) • 증권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추진 • 한국선물거래소, 주가지수선물시장, 주가지수옵션거래 시스템 도입 (1990년대 중반)
아시아 금융위기 (1997~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해외자본 유출로 인한 금융시장 붕괴 • 금융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밑거름 마련
시장구조 개선 단계 (1999~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짐 • 금융감독 시스템 재정비 • 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법 시행 • 자본시장 완전 개방 • 자본시장법 제정

한국의 자본시장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글로벌 수준의 자본시장으로 발전하였고, 그 현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은 거래소(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 등 3개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시장은 5개의 시장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구조화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은 코스피 200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여, 금, 미달러화, 금리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크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역시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활성화 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1년까지 세계 최고의 거래량을 자랑했던 코스피 200 선물 및 옵션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 규제로 인해 최근 상당히 위축되어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의 효과적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및 운영체계

박기환 | 팀장 | 한국예탁결제원

박기환 팀장은 사회적기업의 효과적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및 운영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Crowd)’라는 단어와 ‘펀딩(Funding)’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뜻을 지닌다. 다시 말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SNS의 보편화로 인하여 온라인상으로도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200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여러 보고서 및 세계은행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과 다른 혁신적 기업 금융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정의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원 방식과 보상에 따라 후원 기부형, 대출형 그리고 투자형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 된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좀 더 세분되어 다섯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중 금융시장과 관련된 크라우드펀딩으로는 대출형과 투자형이 있고, 투자형은 발행되는 증권에 따라 지분형과 채권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장점 • 빠른 정보의 흐름 • 시장 테스트의 기회 •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음	대출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은행과 비교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자는 예금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는 매우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주식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지분 참여로 무한한 잠재적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은 잠재적 투자 손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채권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는 미리 정해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의 높은 실패율 때문에 주식 투자와 매우 유사한 손실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회적기업의 비중은 약 11%다.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중 현재까지 24건(성공률 67%)이 성공하였으며, 펀딩 규모는 110만 달러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박기환 팀장은 크라우드 펀딩 산업 자체가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이들에게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초청세미나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

CIFC Invitational Seminar : The Role of Finance in the World of Digital Sharing Economy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9년 7월 18일(목)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2층 카프리룸에서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해금협 회원기관 담당자들에게 최신 금융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회원기관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박 2일 워크숍 형태로 개최 되었다. 총 2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 동 세미나에서는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디지털 경제공동체 속 금융부문 규제 혁신의 필요성: 해외 사례, 법률이슈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다음날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원기관 대표로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담당자의 해외사업 노하우 공유가 이루어졌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	내용
16:00-16:05	인사말씀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김정환 센터장
16:05-16:55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석완 선임연구원
16:55-17:10	휴 식
17:10-18:00	디지털 경제공동체 속 금융부문 규제 혁신의 필요성 : 해외 사례, 법률이슈 및 시사점 법무법인 린 흥명중 변호사
18:00-21:00	네트워킹 만찬



전문가 초청세미나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

CIFC Invitational Seminar : The Role of Finance in the World of Digital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정석완 | 선임연구원 |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석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공유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유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 증가로 이보다 더 빠르게 공유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의 것을 빌려 쓰고 또 어떤 회사에 속해있는 것을 빌려 쓰는 두 가지 공유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빌려주고 빌릴 주체를 연결할 채널과 서비스 제공자가 등장하면서 공유의 규모가 확대되어 경제라고 일컫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공유경제와 전통경제가 마찰하며 벌어진 몇 가지 대표적인 현상들 중 우버와 크라우드펀딩을 예로 들며,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의 도입 이후 따라오는 사회적 변화나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제도인·허가, 노동 부문의 문제 등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제도·인허가	노동·공공자원
 <p>택시, 숙박업계 등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공급되는 시장에서 충돌</p>	<p>'에어비앤비'를 통한 민박이음 관련 안전주의</p> <p>최근 일본 후쿠오카지역을 관광 방문한 우리나라민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민박집에서 화재사태가, 신축된 층고 빌딩이 많아 화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p> <p>* 최근 주로 2~3인 이하 중소형집의 방화감염제로 중 상량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민박집을 예약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추세</p> <p>* 그러나 일부지역의 민박집을 중 상량층빌딩가 기존 경우와 다를 수 있어 접근성, 화재의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아울러 민박집집객까지 잘 적안을 필요로 있음</p> <p>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 확인 불가</p>	 <p>Uberisation(위험의 외주), 공공재의 영업자본화</p>
<p>▶</p> <p>플랫폼 업체의 이익독점 논란 점화</p>	<p>▶</p> <p>숙박업을 필두로 위생, 안전, 적정교육이수, 자격 등 영업요건 강화</p>	<p>▶</p> <p>공유경제 BM 수익성 ↓</p>

또, 그는 이처럼 누구보다 공유경제를 원하는 우리 사회에서 공유경제의 적지 않은 부분이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에, 정부나 제도 그리고 금융권이 앞장서서 공유경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1인가구의 증가로 공유 주택 부문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디지털 경제공동체 속 금융부문 규제 혁신의 필요성 : 해외 사례, 법률이슈 및 시사점

홍명중 | 변호사 | 법무법인 린

홍명중 변호사는 디지털 경제공동체 속 금융부문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공유경제의 시대란 타인의 것을 빌려쓰는 렌탈 시대로 개인의 것을 소유하기보다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의 공유경제 사례로는 전통적인 B2C 여신금융 영역을 벗어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급격히 활성화 된 P2P 연계대부업체 렌딩과, 투자기회와 투자대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QARA소프트를 소개했다. 이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공유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과거지향적이고 보수적인 현실의 금융규제를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금융 분야의 공유경제와 금융 혁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지 설명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인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에 주목했다.



시범영업 및 특례적용 (법 제16,17조)

-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가능**

※ 법 제16조 : ①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 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②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기 부적합 ③ 혁신금융서비스 허용 여부가 불명확
④ 서비스 영위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 인정**

• 타 부처 소관 법령(전자서명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
• 소비자에 회복 불가한 피해,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불인정

※ (유의-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금융관련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법 제18-21조, 제27조)

-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 존재시 **지도·시정**

-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토록 의무화 → 지정 심사에 반영

-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배상책임 이행보장장치 마련토록 의무화 → 지정 심사에 반영

마지막으로 그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법이 현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만, 또 그만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가 혁신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과 정부가 함께 사고 체계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공유경제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인도 증권시장 전문가 초청 공동연수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1월 26일(토)부터 1월 30일(수)까지 3박 4일간 '인도 증권시장 전문가 초청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동 연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에 대한 투자정보 공유와 한-인도 자본시장간 투자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세미나, 1-on-1미팅, COE급 만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도 뭄바이 증권협회, 국제거래소 등에서 참석한 인도 증권시장 전문가 9명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국내의 인도투자 관심 금융회사 및 연기금 임직원 약 160명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 한국신용정보원 · IBK기업은행

신남방 4개국 은행 및 은행협회 임직원 초청 공동연수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 IBK기업은행은 2019년 5월 22일(수)부터 5월 25일(토)까지 3박 4일간 '신남방 4개국 은행 및 은행협회 임직원 초청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동 연수는 5월 23일(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주관하에 개최된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금융당국자 7명을 초청하기 위해 추진된 공동연수 사업으로, 국내 · 외 금융당국이 핀테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했다.



한국거래소 · 코스콤

중남미 금융관계자 초청 공동연수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은 2019년 7월 8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4박 5일간 중남미 거래소, 금융기관, IDB, IDB Invest관계자 등 총 20인을 초청하여 '중남미 금융관계자 초청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동 연수는 한국의 자본시장 소개, ESG지수 개발 노하우 공유, 한국의 ESG투자 현황 및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소개라는 3개의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환영만찬, KRX인덱스 컨퍼런스, 중남미 ESG지수 개발 방향 및 ESG 투자 활성화 세미나,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해금협, 금융위원회, 미주개발은행에서 주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태국 자산관리공사 초청 공동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7월 15일(월)부터 7월 16일(화)까지 1박 2일간 '태국 자산관리공사 초청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동 연수는 사업다변화를 추진 중인 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라인 부실자산 매각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의 온비드 시스템 방문 연수를 요청함으로써 추진되었으며, 태국 자산관리공사의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5명이 참석했다. 동 연수 일정 중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개요가 소개되는 세션이 포함되어 태국 연수단이 한국의 선진 금융인프라와 유관 기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정례회의

01

1월 2019년도 정기총회

- 일 시** 2019년 1월 25일(금) 11:00~13:00
- 장 소**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참여기관/인원** 20기관 / 27명

2018년도 해금협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19년도 해금협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2019년도 연회비 납부대상 회원기관 및 금액,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정기총회 개최

02

2월 정례회의

- 일 시** 2019년 2월 22일(금) 15:00~16:00
-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여기관/인원** 20기관 / 31명

현지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 초청 세미나, CIFC BiAnnual, 해금협 홍보 플랫폼 개선 작업 등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2월 정례회의 개최

03

3월 정례회의

-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16:00~17:00
-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여기관/인원** 19기관 / 26명

현지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 초청 세미나, CIFC BiAnnual, 해금협 홍보 플랫폼 개선 작업 등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3월 정례회의 개최



04

4월 정례회의

일 시 2019년 4월 22일(월) 10:00~11:00

장 소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참여기관/인원 22기관 / 35명

2019년도 해금협 주요사업 추진경과 및 지출예산 전용안에 대한 보고, 회원기관 공동연수 지원여부 의결, 기타 공지사향 전달 등을 위해 4월 정례회의 개최

05

5월 정례회의

일 시 2019년 5월 27일(월) 17:00~19:00

장 소 포시즌스 호텔 10층 비즈니스 미팅룸

참여기관/인원 17기관 / 31명

현지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초청 세미나, 해금협 홍보 플랫폼 개선 작업 등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회원기관의 주요 해외사업 일정을 전달 및 안내하기 위해 5월 정례회의 개최

07

7월 정례회의

일 시 2019년 7월 19일(금) 10:00~11:30

장 소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2층 마이애미룸

참여기관/인원 17기관 / 35명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중앙아시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보험업권 전문가초청세미나, 국제 금융협력포럼 등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논의하고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7월 정례회의 개최



발 행 일 | 2019년 8월 30일
발 행 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전국은행연합회관 5층
전 화 | 02-3705-6353
팩 스 | 02-3705-6285
홈페이지 | 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